

TPO, 원료가격 상승 책임져라!

자동차, 소재기업에 가격상승 부담 강요 ... 울며 겨자먹기 생산

TPO 시장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상승분을 소재기업들이 모두 흡수하고 있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TPO(Thermoplastic Polyolefin) 시장은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1994년을 기준으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외장재, 내장재를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TPO 수요는 자동차 수요증가에 힘입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가소제 때문에 자동차 내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도 2002년부터 PVC 소재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 역시 점차 TPO로 전환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량화의 요구와 지구환경문제로 탈 할로젠성, 리사이클성 등의 강한 요구대응에 부합되며 TPO는 가황고무에 비해 비중이 가볍고 리사이클도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요구흐름에 잘 맞아 장래전망 또한 밝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용 TPO는 현재 3만톤 시장이 형성돼 있는 Hard Type TPO와 3-5만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Soft Type TPO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용 자동차 수요가 많아 수출물량에서는 TPO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PO 생산기업은 2004년 초부터 계속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마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원재료 상승분을 소재기업이 부담하라고 떠넘기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수요량이 많은 곳일수록 가격인정을 받지 못해 타격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Hard Type TPO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EP는 “최종제품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원재료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재 생산기업들만 부담을 떠안고 4개월간 적자가 지속되자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신규진입은 어렵지만 진입 이후에는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져 관련기업들이 모두 탐내고 있는 시장이어서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High-Tech 기술이 요구돼 개발과정에서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시장이고 기술개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Bumper용 TPO의 수요는 연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내장재용 TPO는 가장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Instrument Panel이 대체됨으로써 다른 부분의 대체를 리드해나갈 것으로 전망돼 2004년 이후 시장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자영 연구원>

<화학저널 2004/07/07>